“부산 사상, 불자인재 큰 동량 만들겠다”

사상구불교연합회, 구랍 26일 장학금 전달식 개최

40여 회원 스님, 십시일반 모아
인재불사 및 지역민 위한 나눔
장학생 “꿈을 향해 나아갈 것”
열악한 사상구에 자비보살행 천명



사상구불교연합회는 구랍 26일 부산 운수사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인재불사에 더욱 앞장설 것을 천명했다.

부산 사상구 지역 스님들이 불교 인재 불사를 위해 지속적인 나눔행을 펼치고 있다.

사상구불교연합회(회장 유정)는 구랍 26일 운수사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은 연말을 맞아 미래 주역들이 불교인재 동량으로 성장해 줄 것을 발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회장 유정 스님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성문 스님 및 회원 스님들, 학부모 및 학생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유정 스님은 학생들을 격려하며 더욱 학업에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유정 스님은 “여러분 스스로 탁마하고 정진해 꿈을 성취할 수 있길 바란다. 오늘 이 행사가 여러분의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회원 스님들도 함께 마음 내 나눔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이상갑 사상구불교연합신도회장도 재가 신도를 대표해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발원했다.

또한 한 해 동안 지역에 정신적 기둥으로 활동한 스님들에게 감사인사를 올렸다. 이 회장은 “한 해 동안 국가적으로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는데, 사상구 내에서 스님께서 저희들을 위로해주시고 도와 주셔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혜롭게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며 “스님들께서 정성으로 모은 장학금이 학생들의 성장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학금 전달식에 참여한 20여명의 중 · 고등학생과 학부모들은 스님들의 나눔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형민(해동고 1) 학생 외 4명은 “학교 불교학생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스님께 장학금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이 마음을 잘 간직해 앞으로 더욱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불교 활동도 잘 이어갈 것이다”고 답했다.

김나영(주례여중 1) 학생은 “반야정사에서 신행 활동하고 계신 어머니가 기도 해주시고 활동해 주셔서 이렇게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다”며 “꿈이 정신과 의사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꿈을 이루고 싶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날 사상구불교연합회는 총회를 개최하고 선광사 주지 성문 스님을 차기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

성문 스님은 “회장 유정 스님께서 활동을 너무나 잘하셔서 어깨가 무겁다. 인재불사는 저희 연합회의 전통으로, 앞으로도 잘 이어갈 것”이라며 “지역사회 포교를 위해 나눔 바자회, 불우이웃 돕기, 경승 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쳐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사상구불교연합회는 매달 장학생을 선정,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회원 스님들은 장학금 후원을 위해 1년 동안 자비로 십시일반 회비를 모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일 찻집을 개최해 사상구 불자들이 나눔에 함께 동참하도록 권유하고 있어 자비 실천 지역으로 이끌고 있다.

이밖에도 논산 훈련소 군포교 활동, 경로잔치, 부산불교연합회 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불교 문화재 발굴 및 양성, 경승 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이바지 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국가안녕 · 상생 화합하는 정유년 되길”

구랍 27일 ‘대구 · 경북 불교지도자 밤’ 열려



병신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대구 · 경북 불교 지도자의 밤’이 구랍 27일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자리는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 최근 국가적 혼란과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등과 관련 국가안녕과 지역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진행됐다.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은 “송구영신의 때를 맞이해 불자들은 상생과 화합의 단초를 마련해야한다”며 “사회안녕을 위해 불자들이 앞장서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수행에 더욱 매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계종 원로의원 지성 스님도 “다가오는 새해에는 실천하고 기도하는 불자가 되어 나라가 편안하고 대구시민과 도민이 편안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효광 스님은 올 한 해 불교계서 활약한 스님 및 불자들을 위한 시상식도 진행했다. 운문사 주지 진광 스님이 포교대상을, 관오사 박종명 신도회장이 봉사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밖에 대학교 불교학생회 3곳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금산사 · 전북금연센터, ‘금연 템플’ 협약

금연캠프 참가자 대상 체험형 템플스테이 제공



김제 금산사와 원광대학교병원 전북금연지원센터가 구랍 26일 템플스테이를 통한 금연지원서비스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양 기관은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상호협조와 전북지역 흡연율 감소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금연지원센터의 금연캠프 참가자를 대상으로 체험형 템플스테이 금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산사 템플스테이 사무국은 2박3일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해 금연을 돕는다.

금산사 관계자는 “사찰의 주요한 수행법인 108배와, 걷기명상, 촛불명상 등을 통해 참가자들의 심신 이완과 습관을 바꿔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경재 전북금연지원센터장은 “산사서 진행되는 금연 캠프는 흡연 중독자들의 심신 안정에 효과가 커 금연 성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병원 전북금연지원센터는 금연 성공이 어려운 중증 · 고도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캠프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산 공덕원, 지장보살님 나투다

구랍 28일 점안법회 봉행

부산 공덕원(주지 능후)이 구랍 28일 법당에서 ‘지장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지장기도 도량인 공덕원은 이번 점안 법회를 통해 더욱 기도하고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주지 능후 스님은 “지장보살님과의 인연으로 이번 생에 더 큰 가피를 얻고 행복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기도도량으로 역할을 다하고 포교에도 앞장 설 것”이라고 전했다.

법회 법주로 양산 미타암 주지 명천 스님과 신도 1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백제 때 창건된 군산 보천사 ‘전통사찰’ 지정

문체부 자문위, 구랍 26일 지정
군산 소재 전통사찰 총 7곳


구랍 26일 전통사찰로 지정된 군산 보천사 전경.

군산시 서수면에 위치한 조계종 보천사(주지 의종)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전통사찰로 지정됐다.

보천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 지정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랍 26일 전통사찰로 지정됐다. ‘전통사찰’은 역사적으로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거나, 한국 고유의 불교 · 문화 · 예술과 건축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의의를 가진 사찰을 말한다.

이로써 군산시에 소재한 전통사찰은 총 7곳이 됐다.

보천사는 백제 무왕 2년(602년) 신라 고승 혜공대사에 의해 700여 평에 이르는 큰 규모로 창건됐다.

그 후 고려시대 공민왕 2년(1352년)에 나옹대사가 보천사를 중창했고, 조선시대에는 고승 취계당대사가 중수하며 군산의 3대 사찰 중 하나로 법맥을 이어왔다. 이처럼 유서 깊은 사찰이었으나 1924년 일제에 의해 폐사된 아픔을 가졌다. 당시 일본인들은 장비를 동원해 보천사의 여러 건물을 해체, 부산을 거쳐 일본으로 옮겨 갔다고 한다. 불상은 부산서 반송돼 지금은 익산 웅포면 숭림사에 있는 나한전에 모셔져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깊은 역사를 간직한 보천사의 전통사찰 지정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곳 사찰이 한국 불교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보존 계승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하구불교聯, “어르신, 새해도 건강하세요”

구랍 27일 떡국떡 나눔



부산 사하구불교연합회(회장 혜우)는 구랍 27일 무료급식소에서 새해를 맞아 어르신들 건강과 행복을 발원했다.〈사진〉 아울러 회원 사찰서 십시일반 모은 쌀 250kg을 떡국떡으로 제작해 무료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에게 나누고 힘찬 새해를 당부했다.

혜우 스님은 “더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길 바란다. 많이 오시면 더 많이 준비하고 건강을 챙겨 드릴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업무협약을 맺은 지역병원을 소개하며 아픈 어르신들의 회복을 위해 앞장설 것을 전했다. 스님은 “업무 협약을 맺은 병원이 있다. 병원비 절약도 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픈 곳이 있으면 사하구 어느 사찰이든 방문해 부탁하면 신속하게 도와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大韓佛教傳統曹溪宗 (대한불교전통조계종)

본 종은 釋迦世尊의 自覺覺他 覺行圓滿한 根本教理를 奉體하며 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을 종지로 하고 있으며 釋迦牟尼佛을 教祖로 太古普愚國師를 宗祖로 하여 韓國佛教中興祖 鏡虛禪師로 부터 法脈을 이어받은 滿空禪師, 飽山禪師, 牛角道一禪師의 傳法을 傳受하여 宗旨宗風을 세운 傳統宗團입니다.



전법대화상 : 우각당 도 일 대 선 사
종 정 : 혜강당 석능인대종사 (석가여래부촉법 제77대)

원로최고의원 : 각암. 지산
원 로 의 원 : 범아 보각 덕암 지원

원로의장 : 법장 종회의장 : 도안 총무원장 : 대웅 중앙연수원장 : 동담
사정원장 : 귀천 승정원장 : 덕암 법계고시위원장 : 혜암 중앙선원장 : 혜광
승가대학장 : 무척 교육원장 : 무아 포교원장 : 효천 율원원장 : 두현
호계원장 : 혜명 염불원장 : 상호 문화원장 : 연제

총무부장 : 도법 재무부장 : 보현 교육부장 : 응수 호법부장 : 보관
사회부장 : 법연 규정부장 : 혜관 비구니부장 : 길상 문화부장 : 지혜
사서실장 : 지관 문도총무 : 청아 사무국장 : 적광

경기교구종무원장 : 불산 인천교구종무원장 : 일경(신광식) 경남교구종무원장 : 무척
충북교구종무원장 : 길상 충남교구종무원장 : 지원 대구교구종무원장 : 법천
경북교구종무원장 : 석강 부산교구종무원장 : 심공 울산교구종무원장 : 무정
총본산행자교육원장 : 성도 미주교무종무원장 : 혜성

전국신도회 회장 : 김용규법사
전국포교선원 : 안양선원. 시흥선원. 천안선원. 부평선원. 주안선원. 의정부선원. 화성선원. 공항선원. 산본선원. 심곡선원. 성남선원. 권선선원. 연무선원. 계산선원. 연수선원. 백운선원. 신천선원. 부천선원

최근입종승려 및 포교사 : 불산. 석담. 혜공. 성원. 길산. 해인. 연담. 향산. 무성. 박승정. 오유정. 박병갑. 오현국. 임종국. 김진우. 정태호. 정철수. 조해숙. 김순애. 신주용. 우흥렬. 윤평중. 현종률. 김흥찬. 방선영. 서현식. 박석재. 홍성영. 나인정. 신명수. 이도경. 김상용. 기지영. 신재식. 원순례. 한병환. 박찬희.

총 본 산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5길 197번지 각황사 ☎ 053)325-0400. 010-7283-0089. 팩스 053)325-4848
전국신도회 |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 7번길 17 205호 ☎ 031)498-5123. 팩스 031)498-4040